

2019년 6월 15일 시행 / 2019년 지방직(서울) 9급 필기시험

국어 기출해설 (B책형)

해설 - 김춘호 교수(종로공무원학원)

1. 외래어 표기 용례로 올바른 것은?

- ① dot - 닷 ② parka - 파카
③ flat - 플랫 ④ chorus - 코루스

1. 정답 ②

해설 파카(parka): 「1」 에스키모가 입는, 후드가 달린 모피 옷. 「2」 후드가 달린 짧은 외투. 겨울옷으로 솜이나 털을 넣어 두껍게 만든다.

오답 풀이 ① dot - 도트

③ flat -플랫

④ chorus -코러스

2. <보기> 의 ㉠~㉣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다락골 ㉡ 국망봉 ㉢ 낭림산 ㉣ 한라산

① ㉠ - Dalakgol ② ㉡ - Gukmangbong

③ ㉢ - Nangrimsan ④ ㉣ - Hallasan

2. 정답 ④

해설 '한라산'의 발음은 [할:라산]이므로 'Hallasan'으로 표기해야 한다. 자음 동화의 경우 표기에 반영한다.

오답 풀이 ①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적어야 하므로 '다락골'은 'Darakgol'로 표기해야 한다.

② '국망봉'은 [궁망봉]으로 발음하므로 'Gungmangbong'으로 표기해야 한다.

③ '낭림산'은 [낭:림산]으로 발음하므로 'Nangnimsan'으로 표기해야 한다.(○)

3. <보기> 는 황진이가 지은 시조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를 버혀 내어

(㉡)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

① 허리 春風

② 허리 秋風

③ 머리 春風

④ 머리 秋風

3. 정답 ①

해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동짓달 지나긴 밤을 잘라 이불 아래 넣어두고 정든 임이 오면 퍼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허리’가 적절하다. 그리고 동짓달의 밤을 이불 아래 넣어둔다는 표현을 통해 ㉡에 들어갈 시어로는 동지와 상대적인 개념인 ‘춘풍’이 적절하다.

4.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이 꺼져 간다. ② 그 사람은 잘 아는척한다.
③ 강물에 떠내려 가 버렸다. ④ 그가 올 듯도 하다.

4. 정답 ③

해설 떠내려 가 버렸다(×) → 떠내려가 버렸다(○):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 뒤에 오는 용언은 띄어 쓴다. ‘떠내려가다’는 합성 용언이므로 ‘떠내려가 버렸다’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꺼져 간다(○, 원칙) / 꺼져간다(○, 허용):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가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② 아는 척한다(○, 원칙) / 아는척한다(○, 허용): ‘척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릴 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의미의 보조 용언이다. 따라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④ 올 듯도 하다(○): ‘듯하다’는 보조 용언이지만, ‘듯’이 단독으로 쓰이면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게 되면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5. 맞춤법 사용이 옳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웃어른, 사흔날, 베갯잇 ② 널리리, 남존녀비, 헤택
③ 적잖은, 생각건대, 하마터면 ④ 홀몸, 밋밋하다, 선율

5. 정답 ②

해설 널리리(×) → 널리리(○):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남존녀비(×) → 남존여비(○):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헤택(×) → 헤택(○): ‘헤’의 ‘ㄷ’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ㄷ’로 적는다.

6.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 ①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②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③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④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6. 정답 ②

해설 격조사가 아닌 보조사가 쓰인 부분의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보조사를 격조사로 교체하여 문장 성분을 파악하면 된다. ②의 경우 ‘마음만은’은 ‘마음이’로 쓸 수 있으므로 주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밥도’는 ‘밥을’로 쓸 수 있으므로 목적어이다.

③ ‘물만’은 ‘물을’로 쓸 수 있으므로 목적어이다.

④ ‘사투리까지’는 ‘사투리를’로 쓸 수 있으므로 목적어이다.

7.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한 것은?

- ① 새까맣다 - 싯퍼렇다 - 섯노랗다 ② 시빨꺄다 - 시허엇다 - 싯누렇다
③ 새퍼렇다 - 새빨꺄다 - 섯노랗다 ④ 시하얇다 - 시꺼멇다 - 싯누렇다

7. 정답 ②

해설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는 ‘새-/시-’를 붙이되, 어간 첫 음절이 양성 계열 모음일 때는 ‘새-’, 음성 계열 모음일 때는 ‘시-’로 적는다. 그리고 울림소리 앞에는 ‘셋-/잇-’으로 적는다. 따라서 ‘시뻘쭙다, 시허엿다, 시누렁다’는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시퍼렇다(×) → 시퍼렇다(○)

③ 새퍼렇다(×) → 새파랗다(○), 시퍼렇다(○)

④ 시하얗다(×) → 시허엿다(○), 새하얗다(○)

8. <보기> 는 시의 일부분이다. 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한자어는?

<보기>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테니스에 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유에프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중략]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 ① 편견(偏見) ② 불화(不和) ③ 오해(誤解) ④ 독선(獨善)

8. 정답 ①

해설 작품에서는 서로 대조가 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 제목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하는 ‘편견(偏見)’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불화(不和): 서로 화합하지 못함. 또는 서로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함.

③ 오해(誤解):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앎.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

④ 독선(獨善):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

9. 서로 의미가 유사한 속담과 한자 성어를 짝지은 것이다. 관련이 없는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원님 덕에 나팔 분다 - 狐假虎威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晚時之歎
 ③ 언 발에 오줌 누기 - 雪上加霜 ④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 目不識丁

9. 정답 ③

해설 ‘언 발에 오줌 누기’는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와 통하는 한자성어는 ‘동족방뇨(凍足放尿)’이다. 반면에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로 유사한 속담으로는 ‘엷친 데 덮치다’가 있다. 따라서 둘은 서로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원님 덕에 나팔 분다: 사또와 동행한 덕분에 나팔 불고 요란히 맞아 주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남의 덕으로 당치도 아니한 행세를 하게 되거나 그런 대접을 받고 우쭐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가호위(狐假虎威):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만시지탄(晩時之歎/晩時之嘆):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④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기억 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억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목불식징(目不識丁): 아주 간단한 글자인 ‘丁’ 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까막눈임을 이르는 말.

10. <보기> 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은?

<보기> 한글 중 초성자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로 구분된다. 기본자는 조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으로, 획을 더할 때마다 그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세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체자는 획을 더한 것은 가획자와 같지만 가획을 해도 소리의 세기가 세어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	--	--	--	--

- ① ㄹ ② ㄷ ③ ㅂ ④ ㅈ

10. 정답 ①

해설 ‘ㄹ’은 가획자가 아니라 이체자이다.

오음(五音)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제자원리
아음(牙音)	ㄱ	ㅋ	ㅇ	舌根閉候之形(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설음(舌音)	ㄴ	ㄷ, ㄸ	ㄹ	舌附上齶之形(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
순음(脣音)	ㅁ	ㅂ, ㅃ		口形(입의 모양)
치음(齒音)	ㅅ	ㅆ, ㅈ, ㅊ	ㅌ	齒形(이의 모양)
후음(喉音)	ㅇ	ㅎ, ㆁ		喉形(목구멍의 모양)

11.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옷 색깔이 아주 밝구나! ② 이 분야는 전망이 아주 밝단다.
③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다. ④ 그는 예의가 밝은 사람이다.

11. 정답 ③

해설 ②의 ‘밝다’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의 의미로 동사이다. 또한 현재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것으로도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는 모두 형용사이다.

- ① 빛깔의 느낌이 환하고 산뜻하다.
② 예측되는 미래 상황이 긍정적이고 좋다.
④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

[참고]

밝다

[Ⅰ] 「동사」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

[Ⅱ] 「형용사」

[1]

「1」 불빛 따위가 환하다.

「2」 빛깔의 느낌이 환하고 산뜻하다.

「3」 감각이나 지각의 능력이 뛰어나다.

「4」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

「5」 분위기, 표정 따위가 환하고 좋아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데가 있다.

「6」 인지(認知)가 깨어 발전된 상태에 있다.

「7」 예측되는 미래 상황이 긍정적이고 좋다.

[2] 【...에】

어떤 일에 대하여 잘 알아 막히는 데가 없다.

12. <보기> 의 ()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보기>

지난여름 작가 회의에서 북한 동포 돕기 시 낭송회를 한 적이 있다. 시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고 했다. 내가 (㉠)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지만, 북한 돕기라는 데 핑계를 둘러대고 빠질 만큼 뻘뻘뻘뻘하지는 못했나 보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아니었을까.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용택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일 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는 말 못하겠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네 집’이 그의 많은 시 중 빼어난 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	㉡
①	원로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
②	아쉬운	서로가 만족하게 될 실리가
③	시인	잠간의 수고로 동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④	입에 발린	원로들에 대한 예의가

12. 정답 ①

해설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이 일부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찾는 문제이다. ㉠의 경우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고 했다’는 표현을 통해 ‘원로’가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의 경우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를 통해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가 가장 적절하다.

13. <보기> 의 밑줄 친 어휘들 가운데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보기>

불문곡직하는 직설은 사람을 찌른다. 깜짝 놀라게 해서 제압하는 방식이다. 거기 비해 완곡함은 땀을 들이면서 에 두른다. 듣고 읽는 이가 비켜갈 틈을 준다. 그렇다고 완곡함이 곡필인 것도 아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 곱씹어볼 말이 사라지고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글이 군림하는 세상은 살풍경하다. 말과 글이 세상을 따라 갈진대 세상을 갈아엎지 않고 말과 글이 세상과 함께 아름답기는 난

망한 일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막힐수록 옛것을 더듬으라고 했다.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에서 다산은 선인들이 왜 산을 바라보면 즐기되 그 흥취의 반을 항상 남겨두는지 궁금했다. 그는 미인을 만났던 사람이 적어놓은 글에서 그 까닭을 발견했다. 그가 본 글은 이러했다.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그 자태는 기록하지 않았다.’

- ① 틈 ② 공간 ③ 여지 ④ 세상

13.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을 보면 글쓴이는 ‘직설’과 ‘완곡한 말과 글’을 대비하고 있다. 완곡한 말과 글은 듣고 읽는 이가 비켜갈 틈을 주고,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완곡한 말과 글이 사라지면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글이 군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틈’, ‘공간’, ‘여지’는 모두 완곡한 말과 글이 주는 가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이라 말하는 것을 통해 ‘세상’은 ‘직설’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14. <보기>의 설명에 따라 올바르게 표기된 경우가 아닌 것은?

<보기>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① 섭섭지 ② 혼타 ③ 익숙치 ④ 정결타

14. 정답 ③

해설 앞에 울림소리가 있으면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된다. 반면에 앞에 안울림소리가 있으면 ‘하’가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익숙하지’의 준말은 ‘익숙치’가 아니라 ‘익숙지’이다.

오답 풀이 ① ‘섭섭하지’의 준말로 ‘섭섭지’는 적절하다.

② ‘혼하다’의 준말로 ‘혼타’는 적절하다.

④ ‘정결하다’의 준말로 ‘정결타’는 적절하다.

15.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못 짝지어진 것은?

<보기 1>
 (가) ‘방송(放送)’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화였다.
 (나)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다)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
 (라)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오늘]’, 영어에서는 ‘today(투데이)’라고 한다.

<보기 2>
 ㉠ 규칙성 ㉡ 역사성 ㉢ 창조성 ㉣ 사회성

- ① (가) - ㉠ ② (나) - ㉡ ③ (다) - ㉢ ④ (라) - ㉣

15. 정답 ④

해설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각 언어마다 표현하는 형식이 다르다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라)는 자의성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언어의 규칙성은 언어가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 ‘방송’이라는 말의 의미가 변하였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한다.

② (나) 개인 마음대로 단어를 바꾸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에 해당한다.

③ (다) 유한의 표현을 통해 무한의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에 해당한다.

16. <보기>의 밑줄 친 시어를 현대어로 옮길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매운 계절의 ㉠햇죽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운에서다

어데다 무릎을 꾸러야하나?
한발 ㉣재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볼밖에
겨울은 강철로된 무지갯가보다

- 이육사, <절정>

- ① ㉠: 채찍 ② ㉡: 마침내 ③ ㉢: 그 위 ④ ㉣: 재껴 디딜

16. 정답 ④

해설 ‘제끼다’는 비표준어이고, 이 경우 ‘재껴디딜’은 발끝이나 발뒤꿈치만으로 땅을 디디다는 의미인 ‘제껴디디다’가 적절하다. 따라서 ‘제껴디딜’로 바꾸어야 한다.

1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쇠항아리’와 의미가 통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① 조국아 / 한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 / 남의 발톱에 주어본 적 / 없었나니 — 신동엽, 〈조국〉
- ② 아사달과 아사녀가 /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 부끄럼 빛내며 / 맞절할지니 — 신동엽, 〈꺾데기는 가라〉
- ③ 꽃피는 반도는 / 남에서 북쪽 끝까지 / 완충지대 — 신동엽,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 ④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 붉은 발병 났다커니 / 붉은 위독하다커니 — 신동엽, 〈봄의 소식〉

17. 정답 ①

해설 ① ‘쇠항아리’는 진실을 가리는 허위, 인간 본연의 삶을 억누르는 외부적 요소를 의미한다. ①의 ‘발톱’은 조국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외부 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의 ㉠과 ①의 ‘발톱’ 모두 부정적인 외부 요소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② ‘중립의 초례청’은 이념의 대립을 뛰어넘은 화합의 장을 의미한다.

③ ‘완충지대’는 분단의 갈등을 넘어선 화해를 의미한다.

④ ‘봄’은 반영론적 관점에 따라 민주주의, 혹은 평화를 의미한다.

18.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단, ‘은’은 장모음 표시임.)

- ① 비가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났다. — 물난리[물탈리]
- ② 그는 줄곧 신문만 읽고 있었다. — 신문[심문]
- ③ 겨울에는 보리를 밟는다. — 밟는다[밤:는다]
- ④ 날씨가 벌써 한여름과 같다. — 한여름[한녀름]

18. 정답 ②

해설 ‘신문’을 때로는 역행동화된 [심문]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위치동화를 표준 발음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물난리[물탈리]: 유음화에 따라 ‘ㄴ’은 ‘ㄹ’로 발음한다.

③ 밟는다[밤:는다]: ‘밟’은 자음의 어미가 올 경우 [밤]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비음화에 따라 [밤:는다]로 발음한다.

④ 한여름[한녀름]: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따라서 [한녀름]으로 발음한다.

19. 〈보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라고 한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 ① 물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주인공들은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다.
- ③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하는 매개체이다.
- ④ 화투는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19. 정답 ③

해설 이 작품의 인물들은 익명적 존재들로 가득한 현대인들의 개인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잠’ 또한 마찬가지로 의미이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하는 매개체는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아내의 시체 판 돈을 다 써버리고자 하는 사내의 행위를 통해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과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서울 거리를 배회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도시의 권태로움을 느낄 수 있다.

② ‘나’, ‘안’ ‘사내’와 같이 인물을 설정하고, 또한 작품에서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와 같은 표현을 통해 주인공들이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혼자 있기 싫어하는 아저씨에게 ‘화투’가 치자는 것은 의미 없는 놀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참고]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 해제: 이 소설은 도시에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 그리고 고립감과 단절감을 감각적이고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다. 우연히 만나게 된 세 사람의 무의미한 대화와 행동을 통해 전망 없는 세계에 처한 삶의 부조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칭송을 들은 김승옥의 대표작답게 감각적이면서도 유희적인 문체를 통해 인간관계의 단절상을 극적으로 잘 보여 준다. 만남은 있지만 인간적인 소통과 공감이 사라진 현대 사회의 어두운 뒷모습을 ‘의도된 어색함의 상황’에 담아 ‘우리’가 될 수 없는 개인들의 쓸쓸하고 우울한 풍경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파편적인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소외와 고독

● 전체 줄거리: 1964년 겨울, 서울의 어느 포장마차 선술집에서 ‘안’이라는 성을 가진 대학원생과 ‘나’가 우연히 만난다. 두 사람은 서로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다 완전히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다. 두 사람이 술집에서 나오려 할 때,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서른 대어섯 살짜리 사내가 우리 쪽을 향해 말을 걸어와 두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를 간청한다. 힘없어 보이는 그 사내는 저녁을 사겠다고 하며 근처의 중국 요릿집으로 들어간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자신의 아내가 급성 뇌막염으로 죽었고 그녀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사내는 아내의 시체를 판 돈을 모두 써 버리고 싶다며, 두 사람에게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기를 간청한다. 중국 요릿집에서 나와 세 사람은 양품점 안으로 들어가서 알록달록한 텍타이를 하나씩 사고 굴도 산다. 돈의 일부를 써 버렸지만 아직도 얼마의 돈이 남아 있다. 그때 그들 앞에 소방차 두 대가 지나갔고, 사내는 소방차 뒤를 따라가길 원한다. 택시를 타고 화재가 난 곳에 도착해서 불구경을 한다. 그런데 갑자기 사내가 불길

을 보고 아내라고 소리친다. 그러고는 남은 돈과 돌을 손수건에 싸서 불 속에 던져 버린다. 결국 그 돈은 다 쓴 셈이 되었고 그들은 약속한 대로 가려 했지만 사내는 두 사람을 붙잡는다. 혼자 있기가 무섭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 밤만 같이 지내길 부탁하며 여관비를 구하기 위해 근처에 함께 들르길 요청한다. 사내는 남영동의 한 가정집 대문 앞에 멈춰 벨을 누른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며 월부 책값을 요구하다 거절당한다. 그들은 거리로 나와 여관을 잡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다음 날 아침 사내는 죽어 있다. ‘안’과 ‘나’는 성급히 거리로 나온다. ‘안’은 그 사내가 죽을 줄 미리 알았으며, 그래서 일부러 혼자 놓아 둔 것이라고 말한다.

20. <보기> 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는?

<보기>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현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 ① 십년 ㄱ온 칼이 갑리(匣裏)에 우노미라.
관산(關山)을 브라보며 썰새로 문저 보니
장부(丈夫)의 위국공훈(爲國功勳)을 어닉 썰에 드리울고.
- ② 구곡(九曲)은 어드미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속에 못첫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안이히고 불췌었다 흐드라.
- ③ 강호(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침지 아니힘음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④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피 잇닉
녀든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

20. 정답 ④

해설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는 것은 학문 수양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 수양의 자세를 노래하는 작품은 ④이다.

오답 풀이 ① 우국 충정과 장부의 호기(豪氣)

② 고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

③ 안분지족, 임근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